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주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성경: 계 1:5-6, 5:9-10, 뵤전 2:5, 9, 앵 2:21-22, 3:16-17상

I. 주님의 회복은 제사장 직분에 의해 실현된다. 사실 주님의 회복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 슝 3:1-5, 6:12-13, 학 1:8, 12.

A.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사람 편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회복이 있었다.

1. 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끄셨다 — 계 1:5-6, 5:9-10.
2. 온 교회가 제사장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사장 체계는 상실되었고 성직자-평신도 제도로 대치되었다 — 계 2:6, 15.
3. 교회생활의 회복은 참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제사장 직분 안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과의 참된 교통 안으로 다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 14:26, 1:9, 요일 1:3.
4. 주님의 회복은 일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문제도 아니며, 제사장 직분의 문제이다.
5. 우리의 책임은 어떤 종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으로 충만하고 적셔지며 침투될 때까지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으로 점유되는 것을 배움으로써 다만 제사장 직분을 주의하는 것이다 — 앵 3:16-17상, 19.

B. 오늘날 주님께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고 심지어 주님 자신 안으로 이끌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 히 10:19, 고후 3:18, 요 17:22, 24.

C. 주님께 그러한 제사장 체계, 곧 제사장들의 왕국이 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흘러 나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자유를 얻으실 것이다 — 출 19:6상, 계 1:5-6, 5:9-10, 4:11, 앵 1:5, 9, 11, 빌 2:13.

II.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며 제사장 직분에 달려 있다 — 출 19:6상, 25:8-9, 슝 6:12-13, 뵤전 2:5.

A. 교회의 건축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 계 1:5-6, 5:9-10, 히 3:6, 6:20, 7:26, 8:1, 10:19.

B. 제사장 직분은 교회의 건축을 붙들어 준다. 제사장 직분이 없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C.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흐르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지닐 것이고, 교회의 건축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 — 히 11:6, 요일 1:3, 앵 3:8, 2:21-22.

D. 하나님의 건축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셔야 한다 — 스 1:1-4, 7:1-5.

III.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것이 제사장 체계이다. 거룩한 제사장 체계는 영적인 집이다 — 엡 2:21-22, 벧전 2:5.

- A. ‘영적인’은 살아 있고 성장하는 신성한 생명의 역량을 가리킨다. ‘거룩한’은 분별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신성한 본성의 역량을 가리킨다 — 벧전 2:5.
 - 1. 하나님의 집은 주로 신성한 생명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 2. 제사장 체계는 주로 신성한 본성에 의해 존속된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 B.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 ‘제사장 체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에라투스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임, 제사장 무리, 곧 제사장 체계를 가리킨다.
- C.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 D.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생활을 가리키기 위하여 ‘영적인 집’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 1.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는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단체적인 방식으로 사는 영적인 생활이다 — 엡 1:5, 9, 11, 3:11, 창 1:26.
 - 2. 하나님은 그분께서 거하시기 위한 영적인 집, 곧 그분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 무리인 제사장 체계를 원하신다.

IV. 우리는 제사장들로 사역하면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람 안에,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건축해 넣어야 한다 — 엡 3:16-17상, 요 14:2, 23.

- A. “하나님과 사람 하나로 건축함이 주님 앞에서 제사장들의 일일세” — 영어 찬송가 849장 6절 직역.
- B.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지셔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되시는 것이다 — 딤후 1:4, 고후 13:14, 엡 3:16-17상, 롬 8:9-10, 6, 11.
 - 1.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과 목표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건축해 넣으시고 사람을 그분 안에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 삼하 7:12-14상, 엡 3:17상.
 - 2.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 삼하 7:12-14상, 엡 3:17상, 요 14:20.
 - 3.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에 건축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에 건축해 넣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다 — 삼하 7:12-14상, 마 16:18, 요 14:23, 엡 3:17상.
- C. 우리 안에 건축되시고 조성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시자 우리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의 실체로 연합된 상호 거처이다 — 요 14:2, 23, 15:4상.
- D.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든 믿는 이들을 먹이는 것이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든,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 마 16:18, 엡 3:17상.
 - 1.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의 선민 안에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시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에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 될 것이다 — 엡 3:17상.

2.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일해 넣어졌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 갈 4:19, 골 1:28.
 3. 우리는 한 가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안에 공급하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에 건축해 넣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 고후 13:14, 고전 3:9상, 10, 12.
 4.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상 건축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제사장들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 행 9:15.
- E.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에 참여해야 한다. 이 건축물은 신성한 요소가 사람의 요소 안에, 그리고 사람의 요소가 신성한 요소 안에 놓여져 이루어진 조성체이다 — 요 14:20, 15:4상, 요일 4:15.
- F. 우리가 낱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것 등의 네 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에, 그리고 그들을 그분 안에 건축하고 계신다 — 고후 13:14, 엡 3:16-17상, 4:4-6.
- G.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 골 2:19, 엡 4:15-16, 계 21:10.

사역의 밑줄에서 발췌

주님의 회복은 제사장 직분에 의해 실현됨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 사람 편에는 항상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회복이 있었다. 회복된 창조 다음에 아담은 참된 제사장 위치에 놓였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벨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끌렸다. 그는 구속받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고 만지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다.

마침내 사람은 구속 아래 있는 이 제사장 직분마저도 잃어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타락한 족속에서 선택하여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끄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장막이 지성소였다. 아브라함은 지성소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소돔과 주님의 계획에 관한 이상을 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로 떠내려갔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제사장 직분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셨다(출 19장). 한 사람의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그때 제사장 직분은 백성 전체에서 레위 족속에게 국한되게 되었다. 후에 제사장 엘리 때 레위 족

속의 제사장들의 상태는 매우 형편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제사장 직분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왕과 신언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왕과 신언자들은 모두 참된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끌렸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자. 우리가 본 대로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셨던 주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제사장 직분 안으로 이끌었다. 온 교회가 이제 제사장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사장 직분도 역시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의 회복은 바로 참된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다. 그것은 봉사나 일이나 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 직분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이 제사장 직분 안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와의 진정한 교통 안으로 다시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 문제나 어떤 운동이 아니다. 주님의 회복은 전적으로 제사장 직분의 문제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적셔지고 스며들 때까지 주님에 의해 소유되고 점령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온갖 종류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제사장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이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일 중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이나 활동에 의해 시작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분의 모든 일은 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일과 활동, 운동, 방법, 형식, 가르침, 은사까지도 다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참된 제사장 직분이다.

우리는 ‘지붕’ 위에, ‘밭모 섬’에, ‘강변’에, ‘광야’에 얼마 동안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그저 우리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 자체를 갖기 위해, 다른 것에는 단혀 있고 주님만을 위한 분별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때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관념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하늘에 속한 관점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회복은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다. 교회생활의 회복은 운동이나 일이나 활동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직분의 회복이다. 주님께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심지어 주님과 하나 될 때까지 주님 자신께로 이끌린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이때 그분은 자유롭게 흘러 나가실 것이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봉사가 제사장의 봉사가 되어야 함

주님을 위한 모든 봉사는 어떤 종류의 봉사이든지 제사장의 봉사이어야 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 제사장의 봉사이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군대였다. 그러므로 그 군대는 제사장 군대였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기도 한다. 주님의 군대는 제사장 군대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하여 결코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려면 제사장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전쟁은 제사장들이 싸운 전쟁이었다. 그 전쟁에서 그들은 어떤 세속적인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법궤로 싸웠다. 법궤는 강력한 무기였다. 게다가 그들은 양의 뿔을 사용했다. 그들은 특별한 군대였으며,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했다. 모든 것이 아주 독특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전쟁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 군대는 제사장 체계였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들 군

대, 곧 법례의 인도 직분 아래 함께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이다.

우리는 신약에 올 때 사도들이 제사장인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본다. 사도는 제사장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길을 모른다면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했다고 말한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방 믿는 이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모두 로마서를 여러 차례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복음 전파자라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사장인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들이 아니라면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이다. 제사장인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데 자신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의 사역에 드렸다고 말한다. 그것은 말씀을 공급하려면 우리가 먼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기도하는 데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제사장의 봉사이다.

모든 종류의 봉사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겨야 한다. 우리가 장로들이라면 제사장인 장로가 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집사라면 먼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결코 좋은 형제자매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제사장인 남편, 제사장인 아내, 제사장인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제사장이어야 한다.

군대는 반드시 제사장다워야 한다. 사도도 제사장다워야 한다. 복음 전파자도 제사장다워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도 제사장다워야 한다. 장로와 집사들도 제사장다워야 한다. 형제자매들도 제사장다워야 한다. 남편들과 아내들과 부모들과 자녀들도 모두 제사장답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봉사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 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시고 심지어 삼키실 수 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전쟁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장로나 집사로서 봉사를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표현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흘러 나가실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며, 봉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

제사장의 사역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음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에 의해 건축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 지방의 제사장 무리여야 한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하다. 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이다. 그들은 말할 때나 가르칠 때에는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매우 강하다. 그들의 영은 기도에 있어서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의 행함에서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 자신을 열고 주님께 가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배웠다. 그들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에 의해 삼켜지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은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들이 집회에 올 때 아무 것도 그들을 꺼뜨릴 수 없다. 그들의 영 안에는 불타는 무언가가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께 무엇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내 말의 요점이 아니다. 참된 기도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

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열어 놓는 것이다. 주님께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활짝 열고 그분 자신으로 적셔지도록 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부담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안의 느낌을 따라 기도할 것이다.

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장로가 될 수 없고, 집사가 될 수 없으며, 복음 전하는 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없다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없다. 우리가 없다면 그분은 죄인을 구원시키실 수 없다. 우리도 그분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필요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열어 기도하여, 그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도록 해야 한다.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실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부담을 준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자신도 교회를 건축하실 수 없다.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주님께서 사람들과 연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때 교회는 건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축은 말씀의 사역이 아닌 제사장 직분의 봉사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럴 때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교회 역사와 영적인 많은 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원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실행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한다. 물론 바깥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성막 뜰의 모든 활동은 성소나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소나 지성소에 제사장들이 없다면, 바깥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시도 없다. 밖의 모든 활동은 안에 있는 제사장 체계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러한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하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649-651, 689-694쪽)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함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급하는 하나님은 단지 건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분은 또한 건축되신 하나님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일 것이다(고전 3:12).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은 한 지역을 개척했거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졌는가? 우리가 참되고 순수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진 삼일 하나님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하나님이 그들 속사람 안으로 건축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복음 전파, 믿는 이들을 양육함,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의 내재적인 요소는 우리가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일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건축하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심으로, 요소이신 그분 자신과, 구속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에서 나온 것으로 집을 산출하신다. 이 집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집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대이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등의 네 단계로 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에 건축하고 계신다. *(사무엘상하 라이프스타디, 30장, 232-233쪽)*